

보도시점 2026. 4. 28.(화)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16:00

국가AI전략위, 대전서 'K-문샷' × 오송서 '바이오 AX'... 충청권 AX 시동

- 임문영 상근부위원장, 충남대서 '중부권 미래교육 거점' 기조강연
- 대전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현황 공유 및 과학기술 AI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오송서 'K-AI 신약개발' R&D 현장 확인 및 바이오·의료 AI 기업 간담회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4월 28일(화), 대전과 충북 오송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인 'K-문샷 추진전략'과 '바이오 AX'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보는 영남권(4.6~7)·호남권(4.15~16)에 이은 권역별 현장 점검의 세 번째 일정으로, 지역특화 AX 모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충청권은 대전의 국가AI 연구인프라와 오송의 바이오·의료 AI 산업을 함께 점검해,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충남대] AI 시대 대학교육의 미래 제시... 'AI 핵심인재' 양성 강조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오전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 중부권 미래교육 거점 구축 포럼'에 참석해, 'AI 시대 지식 리더십과 대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AI 핵심인재 양성과 대학의 AI 중심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AI 대전환 시대에 대학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미래를 이끌 AI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권 대학과 교육청이 함께 구축하는 협력 모델이 AI 교육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 슈퍼컴퓨터 등 자원을 결집하여 'K-문샷' 연구 인프라 가동

이어 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방문하여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현황과 AI 연산자원의 출연연·대학 개방 활용 사례를 직접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데이터·GPU·AI 모델 등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는 '국가과학AI통합플랫폼' 구축 등 'K-문샷' 이행 현황이 중점 논의됐다. KISTI는 'AI co-Scientist(AI 연구동료)' 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K-BDS, K-BDI) 운영 성과를 공유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과학기술 AI 자원·역량 결집 허브이자 K-문샷의 핵심 기관인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AI는 이제 과학자의 도구를 넘어 가설 수립부터 실험·분석까지 연구 전 주기를 함께하는 '연구동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KISTI의 슈퍼컴퓨팅 역량과 국가과학AI연구센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K-문샷'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AI 연구 인프라를 출연연·대학에 전면 개방하여 연구자 누구나 마음껏 도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송] 'K-AI 신약개발'로 2030 글로벌 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

오후에 위원회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하여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K-AI 신약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을 이어나갔다. 해당 사업은 구조기반 AI 신약개발 지원과 전임상·임상 AI 모델 개발을 통해 AI 신약개발 전 주기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진 기업 간담회에는 아론티어, 에이인비, 히츠, 스탠다임 등 AI 신약개발 기업이 참석해,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AI 신약개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AI 신약개발은 긴 개발 기간과 높은 실패율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게임체인저"라며, "'2030 AI 기반 글로벌 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충청권 현장 점검을 통해 대전의 과학AI 연구 역량과 오송의 바이오·의료 AI 산업 기반이 결합된 '충청권 AX 혁신 거점'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대전·세종·오송을 잇는 충청권이 'K-문샷'과 '바이오 AX'의 국가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역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재양성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지연 (02-2224-4171)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2-2224-4172)
			전문관	허영경 (02-2224-4177)